

특별기획

# 군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 순항

### 사업비 80억원 투입 대야구조장 등 리모델링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키로

## 정현을 익산시장 풍수해 예방시설 유천배수펌프장 방문 현장점검

정현을 익산시장은 28일 풍수해 재해 예방시설인 유천배수펌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정 시장은 펌프장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지역적인 개발리스크 폭우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난 호우로 인해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해 예방을 위해 평상시 펌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집중호우 시 즉각적인 펌프 가동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근무자 모두가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천배수펌프장은 익산 시내권과 남부 지역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2000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형 펌프 8대를 보유하고 있어 시간당 10만 톤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다.

익산시는 재해에 대비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예방시설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여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원 군산부시장을 비롯해 해 기업지원 관련기관, 산업단지 내 금융기관, 조선업종 기업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종의 경영악화로 인력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군산 수출액의 19.4%를 차지하는 등 군산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며, 대부분 전북도민을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도내 조선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와 군산시는 고용 유지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원 군산 부시장은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이 하루 빨리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직원과 소통행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일선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행진의 일환으로 28일 직원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임 후 지난 3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 기업체와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청 안정을 위해 매진해온 정현을 익산시장은 직원들과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직원과의 대화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확실적인 의사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약 2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한 이 자리에는 사전에 정해진 각본 없이 형식이나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느꼈던 고충 등 직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서부터 조직차원의 개선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은 항상 시청 각 분야에서 각자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직원들에게 "익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시정에 매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내부직원들과 더욱 소통하며 직접 고충을 청취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익산시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가 힐빙(heal-bing)시대를 맞아 농촌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생활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관내 농촌지역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개정, 입札, 성산, 옥산 등 4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신규 사업으로 대야면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대면평가 및 현장 평가 등을 받았다.

대야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56억원, 도비 1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1년까지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구)대야면사무소, 구)복지회관, 구)대야주조장 등을 리모델링 후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1개 읍면을 신규 사업 대상지로 발굴 추진할 방침으로 현재 회현, 서수, 나포 등에 대해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반기에는 1개 지역을 자체 선정한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예비계획서 수립 후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방식이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활동 및 추진의지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선진지 견학 및 포럼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 군산해경,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통제 기준·운항 중 인명 구조장비 잠금 금지 등

안전을 강화하고 운항기준은 엄격해진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인 유도선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내 유람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바뀐 법률의 조기 정착을 위해 28일부터 현장 점검활동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통제 기준, 운항 중 인명 구조장비 잠금 금지, 선원 및 종사자 비상훈련 실시 의무, 피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 시기의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음주상태에서 조타기를 잡을 경우 형사처벌과 최고 사업장 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설했다.

또한 의무 미이행, 허위·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칙, 과태료도 대폭 상향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법률의 일반예방주의적 성격을 높였다.

이와 함께 유·도선 선령제한으로 인해 신규 건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를 유람선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개정 법률의 조기정착과 사고예방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유도선법 개정은 승객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것인 만큼 개정 법률을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 운항 중인 유람선은 모두 6척으로 연 평균 1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법사랑위원회 기소유예자 대상 직장체험학습 실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회장 김동수)는 "법사랑위원회와 결연 중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직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지난 28일 (주)하림 익산공장에서 밝혔다.

이날 환영일 법사랑위원장, 강성기 운영실장, 고승영 운영기획, 위정희 법, 이현정, 조명인, 김문연, 이경호, 안대수, 김철, 김영자, 고석현, 김복현, 김종현, 주경옥, 김근섭, 박동호, 정병우, 황인표, 김상화 등의 위원 22명과

간사(장용숙, 이다정)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1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견학이 이루어졌다.

견학 장소는 하림 익산공장으로 첨단 도계기공공장 내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홍보 영상 시청과 회사 현황 소개, 설비 공장 내부 시설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하림 공장 내부 식당에서 삼계탕과 하림 제품 시식까지 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현재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의 전문위원 장인 하림 김홍국 회장의 도움으로 진행하게 됐으며, 참석한 위원과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념선물도 지급되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황인일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계기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임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꿈을 키워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익산지역연합회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학생들이 결연 기간 동안 지난 과오를 반성하도록 잘 인도하고 꿈을 다시 쉼겨우고 건설한 이 시대의 청년으로 거듭나게끔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무연고 지적장애 범죄피해자 전국 첫 성년후견인 선임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원요)가 지난 28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지난 4일 무연고 지적장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사단법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사전 피해자는 지능이 낮고 정신 연령이 7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약 10살 무렵부터 가해자들에게 양육되기 시작한 이래 40여 년간 노동력

을 착취당해왔다. 또 수시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어왔음에도 가해자들 외에는 연고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료·주거의 선택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대신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 및 지급받은 형사합의금 등 보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지속적·체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시스

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다수의 의료·법률·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공익성을 갖춘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해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의료·경제적 지원, 상담 등 기존의 피해자 지원 업무 영역을 넘어 성년후견인으로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 전북서부보훈청,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나라사랑체험축제' 개최

전북서부보훈청장은 "지난 27일 오전 9시 30분경에 모현초등학교 강당에서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나라사랑체험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과 같이한 이날 행사는 제 63주년 정전협정일인 6·25전쟁당시 유엔군 참전용사의 공훈을 기리는 정부기념일인 7·27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참전호국용사에 대

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사랑 정신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열렸다.

6·25참전국 우드마크스 만들기, 나라사랑 부채 제작, 유엔군참전용사 추모탑 쌓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영상 관람, 호국영웅 벽화 그려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됐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개최한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은 "오늘 체험행

사를 통해 앞으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 학생들이 나라와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주관한 김현석 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대표는 "학생들이 나라사랑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지용건축

## 아토피 어린이 위한 주거환경 개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지부장/허원구)와 LH협력업체인 (유)지용건축(대표/최상규)이 "28일 장신휴먼시아3단지(306동)에 거주하는 최다온어린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세대 내 도배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다온어린이는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로 장신3단지로 이사 전에는 일반 벽지가 시공된 아파트에서 생활했으나 이사한 장신3단지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유해한 실크벽지가 시공되어 있어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안 관리사무소는 최다온어린이의 고통을 줄이고자 저소득층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

부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토피 환자에게 좋은 친환경벽지인 편백나무벽지(70만원)를 협찬받고 (유)지용건축의 재능기부를 통해 도배시공(80만원)작업을 실시했다.

허원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장은 "앞으로도 익산지부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유)지용건축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능기부를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장신휴먼시아3단지 박철희 소장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최다온어린이를 위해 선뜻 벽지 및 재능을 기부해 주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와 (유)지용건축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최다온어린이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 고용노동부-익산시 '지역고용 정책협의회' 개최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익산시(시장 정현을)와 공동으로 지난 27일 익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국노총 익산지부, 익산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고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참여기관들의 역할을 결집하여 일자리 창출에 결집되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역 단

위에서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및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량 고용변동에 따른 고용조정 등 지원,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교육

군산시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진권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이 강사로 나서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고, 2016년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이 있다.

김진권 자치행정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충분한 이해와 인식으로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직을 수행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되어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